

현장과 시각

사범부 판단 빠를수록 좋다



장필수

사회2부 차장

인사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분석으로 풀려난 이정섭 담양군수가 5일자로 직무에 복귀한다.

담양군은 4일 간부회의를 통해 "이 군수가 5일부터 출근해 군정을 이끌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전했다. 지난 달 29일 5천만원의 보충금을 내고 구속 1개월만에 석방된 이 군수는 당초 4일부터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이 군수의 한 측근은 "4일부터 출근하려고 했지만 암 수술 휴유증 치료를 위해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며 "출근하더라도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담양군내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군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복귀해 산적인 현안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사람들은 직무복귀가 법적으로는 관습을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111조 1항 2호에 따르면 '공소 제기후 구금상태에서 해제될 경우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담양군도 행정안전부에 직무복귀에 대한 의견을 물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당사자인 군수의 결단에 맡긴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군수는 복귀하는 쪽을 택했다.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자신을 지지해준 주민들을 생각하면 자신사퇴가 바람직한 선택만은 아닐 것이다. 특히 선거과정에서부터 2년여 동안 이어져 온 전직 군수추과의 악연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이 군수측은 자신이 구속된 것도 결국 상대측의 집요한 공작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상대측으로 거론되는 최형식 전 군수는 이와 관련해 최근 성명을 내고 "내가 군정에 대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며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양측간 치열한 물밑 다툼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문제는 양측간 다툼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지역 현안사업은 발목잡혀 있고 '어느 쪽이 진자 돌아줄인'가를 살피는 공무원들의 출세기는 계속되고 있다.

갈가리 찢긴 민심을 당사자들이 수습하지 못한다면 사범부가 결론을 내야한다. 법원은 오는 18일이 군수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루라도 빠른 재판 진행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만이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는 길이다.

1/bungy@kwangju.co.kr

부시 방한... 내일李大통령과 회담

1박2일 일정... 북핵·FTA·주한미군 등 중점 논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일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으로, 양 정상은 지난달 일본 도야코 회담까지 4개월만에 세번째 만남을 갖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5일 별다른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한 뒤 6일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두 정상 내외가 참석하는 티타임과 오찬을 갖는데 이어 주한미군 사령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떠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새 정부 출범과 1차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급진전되는 듯 했던 양국관계가 '쇠고기 파동'으로 다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미간 이상기류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지난 캠프데이비드 및 이번 도야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바탕으로 한 차원 진전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문제의 경우,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핵 신고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도야코 합의를 바탕으로 10일 재개되는 6자회담 틀 내에서 철저한 공조를 거듭 다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우려하기 위해 '비핵, 개방, 3천 구상'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두 정상은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비준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전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한미군 군사력 유지, 미국 무기구매와 관련한 한국의 위상격상, 방위비 분담(SMA) 제도 개선,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공감대 내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이런 논의를 토대로 지난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양국간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함의문 내지 성명 형태의 구체적인 '한미동맹 미래 비전'으로 담아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독도 사태와 금강산 여성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언급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비상 경호체제

시위 대비 경찰 1만6천명 배치

청와대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최근 '전담경호대'를 구성, 비상 경호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이번 부시 대통령 방한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후 최대 외빈 행사로, 경찰청과 공동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경호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이미 지난달 '부시 대통령 전담경호대'를 구성해 실전훈련에 돌입했으며 특히 지난주 방한한 미 비밀검찰총국(SSS) 소속 경호 선발대와 함께 숙소와 행사장에서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 가족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식에 대한 검식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부시 대통령의 숙소 경호와 이동경로 경비에 7천여명, 시위 대응에 1만6천여명의 경찰을 배치키로 했다.

부시대통령 방한에 맞춰 5일 광주병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진보단체들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이에 맞서 370여개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부시방한 환영 애국시민연대'는 환영 집회를 열기로 했다.

1/연합뉴스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 근무하던 조선족 여성 등 40여명이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로 나온뒤 귀국길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1/연합뉴스

통일부 "北 '남측인원 추방' 후속조치 아직 없어"

정부는 금강산에서 불발요한 남측인원을 추방하겠다는 북한의 발표와 관련, 4일 "추가 철수 등 가시화된 북한의 후속조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책과 국내 언론 상황 등을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4~5일 윤관준 사장 등 현대아산 관계자 20여명이 고(故)정몽헌

회장 추모식 참석차 방북한다고 한 뒤 "윤 사장(방북시) 금강산 관광 중단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리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부에서 특별히 메시지를 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아산이 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북측의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르면 이번 주중 금강산 사건 정부합동대책반과 경찰 중간조

사 결과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경찰 조사와 관련,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안전소홀과 박왕자씨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 법적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강산에서 우리측 인원의 자진철수 가능성에 대해 그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1/연합뉴스

오바마 45% vs 매케인 44%

지지율 다시 백중세

민주당 버락 오바마, 공화당 존 매케인 미 대선후보간 레이스가 대선 90여일을 앞두고 선부른 승자예측을 불허하는 백중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는 45%의 지지를 얻어 44%를 기록한 매케인을 1%포인트의 간발의 차이로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8월2일까지 유권자 2천6백84명을 상대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갤럽은 이 같은 박빙의 조사결과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동률"이라고 규정했다.

여론조사 오차범위 등을 감안하면 우위를 가릴 수 없다는 얘기다. 오바마는 지난 6월초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뒤 매케인에게 줄곧 3~4%포인트 앞서가고 있기는 하지만 50%의 벽을 넘지 못한 채 45~50% 박스권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반면 매케인은 경제난과 이라크전 장기화, 미디어 전략부재 등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40%~44%의 비교적 견조한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1/연합뉴스

"英 인간 광우병 또 다시 유행할 수도"

가디언 인터넷판 보도

영국 일간 가디언 일요판인 옵서버 인터넷판은 영국 과학자들과 의사가 향후 20~30년에 걸쳐 vCJD가 영국을 휩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이 같은 경고는 영국 당국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과 광우병(BSE) 관련 연구를 접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지난주 광우병

에 관한 일부 연구가 조만간 중단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옥스퍼드대의 폴린 블레이크모어 신경생리학 교수는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인 vCJD에 대처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면서 광우병과 vCJD가 근절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2의 CJD 사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생했다.

1/연합뉴스

인문지도사자격연수생모집 2008년(제7기)
2008년(제7기)
인문지도사자격연수생모집
2008년(제7기)
인문지도사자격연수생모집

인문지도사자격연수생모집 2008년(제7기)
2008년(제7기)
인문지도사자격연수생모집
2008년(제7기)
인문지도사자격연수생모집

가볍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것!!!
무등산 문법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